

장백산천지

제 134 호

2009 년 4 월 24 일

금요일

포위공격인가? 상방인가?

—사진 한장에서 밝혀진 진상



1999년 4월 25일, 만여명 파룬궁학원들이 북경국무원래신래방사무실에 상방하러 갔다. 중공 총서기였던 강택민은 몰럼치하게도 이 “4,25”상방은 “중남해를 포위공격한 정치시위”라고 떠들면서 파룬궁을 탄압하는 구실로 삼았다.

윗사진은 그당시에 찍은 사진이다. 독자들, 꼼꼼히 생각해 보시라. 중남해의 담벽은 짙은 붉은 색인데 늘어선 사람들의 뒤에 있는 담벽은 회색이다. 이 어찌 중남해를 포위했다고 할수 있겠는가? 중남해를 포위공격한 정치시위가 일어났는데 그 경찰들이 이렇게 한가로히 서있을 수 있겠는가? 대부분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글을 읽고 있는데

그래 이것이 포위공격이란 말인가?

파룬궁학원들이 왜 “4,25”상방을 하게 되었는가? 1999년 4월 11일, 하작휴(何祚庥)가 “청소년과학기술박람회”잡지에 파룬궁을 모함하고 공격하는 문장을 발표했다.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일부 천진시파룬궁학원들이 천진교육학원과 유관부문에 가서 실제정황을 반영했다. 4월 23일과 24일에 천진시공안국 경찰들이 파룬궁학원들을 구타하고 45명을 붙잡아 가두었다. 파룬궁학원들은 이 정황을 천진시정부에 알렸다. 정부에서는 북경에 가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4월 25일에 파룬궁학원들이 자발적으로 북경 국무원 래신래방 사무실로 왔다. 사람이 많아서 신방사무실주위의 부우거리와 서안문 대거리까지 모이게 되어 중남해부근에 접근하게 되었다. 그날 국무원 총리 주용기(朱镕基)가 직접 파룬궁학원을 만나 현장에서 파룬궁대표와 대화하여 폭력으로 사람을 붙잡은 천진사건을 합리하게 해결했다. 저녁에 학원들이 헤어질때 땅에 파지 한장 없었고 경찰들이 던진 담배꽂초마저 주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4.25’ 상방은 중국력사상 가장 이성적이고 전면적인 대규모의 상방이다.》라고 높이 평가했다.

부다페스트영웅광장에 모여 연공하고 있는 파룬궁학원들



지난 4월 11일 오후, 헝가리 파룬궁학원들이 부다페스트영웅광장에 모여

상서롭고 우아한 5조 공법을 펼쳐보였고 파룬궁에 대한 중공의 잔혹한 박해를 폭로했으며 이 박해를 공동히 제지할 것을 민중들에게 호소했다.

토론토부활절시위행진에 참가하여 찬양을 받은 천국악단



지난 4월 12일 오후 2시, 캐나다파룬궁천국악단은 토론토부활절시위행진에 참가하여 관중들의 찬양을 받았다. 천국악단이 이르는 곳마다 관중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열렬히 환호했다.

